



류현진(앞줄 오른쪽)이 4일 대전 우송대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한화의 팬 행사 '2011 제9회 독수리 한마당 축제'에서 팬들과 함께 앉아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이글스

류현진 “ML 먼저!...일본은 입 다물라”



4일 대전 우송대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1 제9회 독수리 한마당 축제' 행사에 참석한 류현진 선수와 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선수들과 팬들이 '도전', '열정', '감동', '우승'의 네 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게임을 펼쳤고 자신기 금마련을 위한 애장품 경매도 열렸다. 사진제공 | 한화이글스

해외진출 원칙 또한번 강조 왜?

“요미우리행 교감” 최근 日 보도 반박
“지금은 한화맨...내년 성적에만 신경”

“나는 지금 ‘한화인’이다. 당분간은 내년 성적에만 신경 쓰겠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메이저리그 도전이 먼저다.”

한화의 절대 에이스 류현진(24)이 해외 진출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류현진은 4일 “나는 지금 한화 소속이다. 당분간은 해외 진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나중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 먼저 도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축 소식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 프로야구 최고 명문팀 요미우리가 류현진과 이미 교감을 끝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요미우리 관계자들과 식사한 적이 있지만 계약이나 입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 이미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류현진과 요미우리의 식사 자리에는 한화 관계자들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메이저리그의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 2012 시즌이 끝나야 해외 진출 자격을 얻게 되지만, 류현진의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에이전트를 확정된 것이다. 류현진은 계약 후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보라스를 선택한 것은 메이저리그 쪽에 뜻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본 진출 쪽이 유리하지만 야구 선수로서의 목표를 위해서는 메이저리그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윤석민(KIA)과도 나중에 함께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래도 지금은 내년 시즌 팀과 자신의 성격에 더 무게를 뒀다. 류현진은 “지금 ‘한화인’이라는 마음이 품고 있다. 한화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당연히 내년 시즌 목표를 높게 잡고 있다. 마운드의 기동인 류현진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한화 관계자 역시 ‘류현진의 해외 진출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내년 팀 성적에 실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류현진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가를 더 높이고 1년이라도 일찍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명성에 어울리는 투구를 해야 한다는 각오와 부담이 있다. 그가 “일단은 다음 시즌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 이유다. 대전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경매·막춤경연...선수·팬 하나된 독수리 축제

■ 현장 리포트

“류현진 선수 선글라스, 21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한 남성팬이 달려 나왔다. 그리고 에이스 류현진이 경매에 내놓은 선글라스를 소중하게 받아 들었다. 류현진과의 악수는 기본 좋은 보너스. 땀뻣한 5만원 권을 내놓으면서도 얼굴에 보람이 가득했다. 수익금이 모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뒤이어 경매에 불이 붙었다. 최진행의 배트가 1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똑같이 방망이를 내놓은 한상훈은 재빨리 뛰어나가 쓰고 있던 모자를 ‘부록’으로 얹었다. 선수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최진행과 같은 금액에 낙찰. ‘오선진이 직접 덮던 이불’이나 ‘하주석이 즐겨 마시는 커피’처럼 기발한 선물들도 폭소를 자아내기는 마찬가지였다.

4일 대전 우송대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1 제9회 독수리 한마당 축제’.

한화 선수들과 팬들이 한 자리에서 호흡하는 이날 행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선수들과 팬들이 ‘도전’, ‘열정’, ‘감동’, ‘우승’의 네 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게임을 펼쳤다.

지난해 신인 투수인 박병우와 문재현은 장안의 화제였던 ‘서플 댄스’를 전문가 수준으로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고, 신인 선수들은 ‘막춤 퍼레이드’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선수들이 행사 도중 쏟아지는 팬들의 사인 공세와 기념 촬영 요청에 성실하게 응한 것은 물론, 1년 중 유일하게 선수들과 팬들이 ‘스킨십’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대전 | 배영은 기자



KIA, 김동재 코치 등기 행사...“꽃범호, 함께 찍어요” 국가대표 외야수 이용규, 올스타 3루수 이범호가 서빙을 했다. KIA 선수단이 3일 광주 진월동 밀러타입에서 김동재 코치 등기 일일호프를 열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중인 김 코치를 위해 KIA 선수들은 사인회, 사인볼 판매, 애장품 경매, 그리고 직접 서빙을 하며 모금을 했다. 이범호가 일일호프를 찾는 한 여성팬에게 사인을 해준 뒤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IA 타이거즈

“롯데가 찍어간 보상 선수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도”

SK 이만수감독 시사...야구 규약상 문제없어



SK 이만수 감독(사진)은 “롯데가 찍어간 FA 보상 선수를 우리도 지명할 수 있다”고 4일 시사했다. SK는 불펜 보강 차원에서 임경완을 롯데에서 뺏아냈다. 이에 불펜이 비게 된 롯데는 이승호를 데려와 SK에 대응했다. 또 SK는 타선보강 차원에서 LG에서 조인성을 영입했다.

야구규약 164조 4항에 의거해 ‘FA 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7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20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SK는 지난달 30일 명단을 만들어 롯데에 제출했다. 롯데도 2일 보호선수 명단을 만들어 SK에 보냈다. 참고로 SK는 LG에는 1일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7일(롯데의 지명) 8일(LG의 지명) 9일(SK의 지명) 보상선수의 윤곽이 차례대로 가려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 만약 7일 롯데가 SK의 20인 보호선수 외 선수 중 A를 지목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를 후 SK가 다시 그 A를 지목해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다. KBO 현행 규약 안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 그래서 이 감독은 “우리가 다시 데려오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롯데는 왜 SK에서 명단을 받았던 11월 30일 바로 보상선수를 딱하고, 그 선수를 포함시킨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만들지 않고, 2일에서야 나왔을까? SK에서 퍼놓은 카드 중 구미에 썩 당기는 선수가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SK는 롯데뿐 아니라 LG를 대상으로도 똑같이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만들어 제출했다. SK가 마련한 나름의 방어가 확고하다는 정황 증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이만수 “마무리? 답이 없다”

FA 정대현 이탈·엄정욱 수술로 고민중

SK 이만수 감독은 플로리다 마무리 훈련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 저녁 5시에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다. 여독이 풀릴 사이도 없이 2일에 문학구장에 나와 미팅을 가졌다. 선수들에게는 “1월 플로리다 캠프 때까지 알아서 몸을 만들어오라”고 자율 속의 책임을 강조한 뒤 바로 귀가시켰으나 코치들은 남아서 계속 토의를 가졌다.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은 투수들의 이탈이다. 정대현 이승호가 FA로 팀을 떠나게 됐고, 송은범 엄정욱 전병두 등이 수술대에 올랐다. 특히 메이저리그 불티모어행을 추진중인 정대현의 공백은 가장 큰 고민이다.

SK는 유사한 보직에 투구유형을 가진 성실맨 임경완을 롯데에서 영입했다. 이 감독은 시즌 목표를 쓰라고 선수들에게 과제를 내줬는데 임경완은 “홀드왕과 우승”이라고 제출했다.

그러나 흐릿함과는 별개로 정대현의 빈자리를 임경완 혼자에게 떠맡길 수 없는 현실도 알고 있다. 이 감독은 “솔직히 답이 없다”고 고백했다. 마무리 자리도 정대현의 이탈로 엄정욱 외에 대안이 없어졌는데 그나마 수술 후 재활 코스를 밟아야 된다. 일러야 개막에 맞추는 스케줄이라 전훈과 시범경기 등판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도 정대현의 빅리그 진출이 모쪼록 이뤄질 길 바라는 마음도 진심이다. 이 감독은 “플로리다 전훈 중 대현이 전화를 받았다. ‘한국야구를 빛내고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섹시댄스·만세삼창·팔굽혀펴기... 최준석·고영민 “장가가기 힘드네”

■ 런 다운

스토브리그에 참기를 남새가 고소하다. 시즌을 마친 선수들이 앞다퉈 웨딩마치를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도 예외가 아니다. 3일 최준석에 이어 4일 고영민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결혼식의 백미는 혼인서약 후 행진을 앞둔 신랑신부를 향한 사회자들의 짓궂은 장난. 첫 번째 희생자(?)는 최준석이었다. 이날

사회를 본 오재원은 여지없이 신랑신부를 멈춰 세웠다. 선배는 후배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선배님 그래도 할 건 해야 합니다”라며 섹시댄스를, 그것도 무반주로 요청해 좌장을 웃겼다. 결국 최준석은 섹시 대신 살랑살랑 댄스로 마무리. 사회자의 책무를 100% 소화한 오재원의 얼굴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고영민은 한층 더 강도 높은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생김새도 비슷하게 알고 보니 ‘절

친’인 개그맨 양상국이 신랑을 마음껏 요리했다. 서로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는 질문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은 새 발의 피. 신부의 드레스 밑에서 “여기가 천국이다”를 삼창하게 하질 않나, 신부에 이어 장모까지 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구호를 외치게 했다. 만세삼창은 신랑신부뿐 아니라 이날 주례를 맡은 허구연 MBC 해설위원도 피해갈 수 없었고, 신랑신부의 감사인사를 굳이 사회자인 자신도 받아내는 등 유쾌한 진행을 이어갔다. 고영민은 식전 “이렇게 떨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친구 덕분에 금세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두산 고영민(오른쪽)이 신부 서혜연 씨와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센터아마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아리따운 신부를 예스코트하는 신랑의 모습. 연합뉴스